

이재명 “무안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거점공항 육성”

국제선 추가 개설·광주공항과 통합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호남 민심 갈라치기 尹 겨냥 맞대응 전남 추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국제선 추가 개설, 활주로 등 시설 확장, 광주공항의 조속한 이전·통합, 면세점·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설 등을 통해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항공산업을 키우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이 후보가 지난 18일 전남을 찾아 국립외국어대학교 신설 등 전남 7대 공약을 발표한 지 엿새 만에 내놓은 추가 공약으로, '광주 복합쇼핑몰', '김대중 정신 계승' 등을 외치며 호남 민심을 줄기차게 파고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무안공항 육성 계획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사는 "공식 입장이 없다"며 당혹해했고, 국민의힘 측은 "거점공항이 될 줄 아느냐"며 곧바로 견제구를 날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10년 내 국제선 26개 노선에서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는 등의 구조조정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국내 항공운송업체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공약 발표 배경을 밝혔다. 슬롯(Slot)이란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착륙을 하거나 이동하기 위해 배분된 시간을 가리킨다.

이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인 항공운송업체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구조조정을 막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해서 슬롯과 운수권 이전 없이 두 항공사 모두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뒤 두 개의 독립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듯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에어프랑스와 KLM(네덜란드 항공)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무안공항 출발 국제노선 증편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조속한 통합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확장 및 면세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편의시설 확충 ▲광주·전남지역과의 접근 교통 인프라 확충 ▲아시아나항공 등 관련 기업 이전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 등을 약속했다.

전남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공약대로 추진된다면 무안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서남권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거리에서 열린 '강원도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이재명이 열겠습니다!' 원주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에 직접 댓글을 달아 "거점공항이 뭔지 알고 하시는 이야기인가. 무안공항이 거점도시가 되면 아시아나 노선망은 어떻게 짜야 한다는 이야기냐. 저비용항공사(LCC)도 버거워 철수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무안공항 여객 수요 부족 지적은 2025년을 전후로 반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

체적인 시각이다. 오는 2025년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사업 완료에 따라 무안공항이 13개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KTX가 진입하는 공항이 되면서 여객 수요 폭증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옮겨가고 코로나 19로 위축된 여행 수요가 회복된다면 새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공약이 될 것이라는

게 전남도 안팎의 시각이다.

아울러 항공운송산업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력이 작동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새정부가 의지를 갖고 집권 초기부터 행·재정적 역량을 쏟아부었다면 무안공항과 아시아나항공 육성과 성장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준석 리스크’ 수습 부심...尹, 단일화 담판 나설까

권영세 “李, 사감 뒤로하라” 安 “지금 시간은 다 지났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은 24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과 상호 '폭로전'으로 더 험미해진 단일화 불씨를 살리려고 부심하는 분위기다.

그간 안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국민의당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이준석 대표의 자중을 주문하는 등 양측 관계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수습에 나선 표정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대본 회의에서 "단일화를 둘러싸고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면서 "정권 교체에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서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다. 우리 모두가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몰발 단일화 대화 내용을 먼저 공개하며 국민의당과 감정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이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표님의 조롱이 아닌 조력"이라고 적었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271구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홍준표 의원은 '청년의꿈' 사이트에서 이 대표에 대해 "오버액션"(과도한 행동), "좀 심한 거 같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전날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화담 성격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본부장은 회견에서 먼저 합당을 제안하고도 안 후보를 계속 비난하는 이 대표에 대해 반감을 표출했는데, 사실상 이 대표를 단일화 걸림돌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윤 후보의 상응 조치를 촉구하는 메시지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제언한다고 해서, 사실상 좌초된 단일화 작업이 되돌아갈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안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경선을 받으면 단일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시간은 다 지났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윤 후보가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 안 후보의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집중유세·지지선언...민주 호남 표심 결집 안간힘

전남 노동자·아동 종사자 지지 청년 선대위 '버스킹 유세단' 가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대선 13일을 앞두고 선거 분위기를 띄우고 이재명 후보 지지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24일 민주당 사·도당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기정 이재명 대선후보 호남총괄특별보도단장을 비롯해, 신정훈·민형배·윤영덕 국회의원, 김광진 전 국회의원등이 오는 26일 광주 광산구 수안지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을 지낸 인사들이다. 강 단장은 "문재인 정부 성공과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뜻을 모았다"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검찰공화국을 막아내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광주의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등도 24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 이용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민주와 평화, 국민통합을 외면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참칭하는 거짓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보복수사를 공인

해 민주 가치를 부정하고 대북 선제타격론으로 한반도 평화를 깨는 윤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을 입에 담은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2030 청년 선대위도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혈액난 극복을 위한 헌혈 릴레이와 광주 동구 동명동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고 유세를 하는 '버스킹 유세단'을 가동하는 등 이색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전남에서는 각종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통해 이 후보의 표심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전남지역 노동자 5000명과 전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000여명, 만 18세 생애 첫 유권자 180명, 4050 여성 450명이 각각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남지역 노동자 5000명 지지선언은 이날 전남도당에서 박해철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 김성춘 한국노총여수지부장, 김성희 한국노총광양지부장, 이영주 한국노총순천지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노동존중 세상을 이룰 후보는 이재명 뿐이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하혜순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국장(전 여수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장) 등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지역과 돌봄 연결 및 국가책임 강화에 대한 이재명 후보 공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읍 금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타라브룸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사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곡, 방축리 담양읍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공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 9십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 6천원
(2) 담양읍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기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대영공인중개사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